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거장 안도다다오의 물의 절

글 편집실 사진 임채진 교수 _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물의 절’이라 불리는 이 사찰은 일본 아와지시마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섬에 지어진 ‘본복사’라는 사찰로서 기존의 낡은 전통적 사찰과 납골당 옆에 새롭게 법당을 신축하여 전통과 현대가 한 장소에서 잘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던 벽과 지붕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건축은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땅 속에 묻혀 있고 수련이 활짝 핀 연못만이 있는 공(空)의 건축이다.

흰 모래를 밟으며 올라간 언덕에는 긴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고 있다. 나무 사이 조그만 문으로 들어선 순간, 또 하나의 긴 콘크리트 벽 가장자리의 좁은 길을 따라가게 된다.

걷는 동안, 벽에 가린 채 콘크리트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가, 벽 옆으로 난 좁은 길이 끝나는 순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과 함께 연꽃이 점점이 피어 있는 수련의 연못만이 눈앞에 펼쳐지고 법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못을 가르면서 연못 속으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계단을 내려와 법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외에서의 원형 콘크리트를 실내에서도 재회하게 된다.

주홍빛으로 칠해진 법당으로는 석양이 흘러 들어와 실내를 운동 타오르는 듯한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늘어선 기둥들이 드리우는 그늘과 붉은 빛이 대조를 이루며 자아내는 풍경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이 된다. 마침내 여기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신만의 진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



물의 절
 위치 일본 아와지시마 츠나군
 설계기간 1989~1990년
 시공기간 1990~1991년
 구조 철근 콘크리트